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미래창조 금융• 따뜻한 금융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7.2.9.(목) 배포시	배포	2017.2.9(목)	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6)		담 당 자	전 은 주 사무관 (02-2100-2662)	

제 목 : 서울경제(17.2.9일자) “온라인펀드 기 살리자, 발벗고 나선 금융당국” 제하의 기사 관련

< 보도 내용 >

- ☐ 서울경제는 2017.2.9.(목) “온라인펀드 기 살리자, 발벗고 나선 금융당국”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E클래스 창구판매 금지 등 활성화 방안 내달 발표”라고 보도

< 사실 관계 >

- ☐ 정부는 현재 온라인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,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